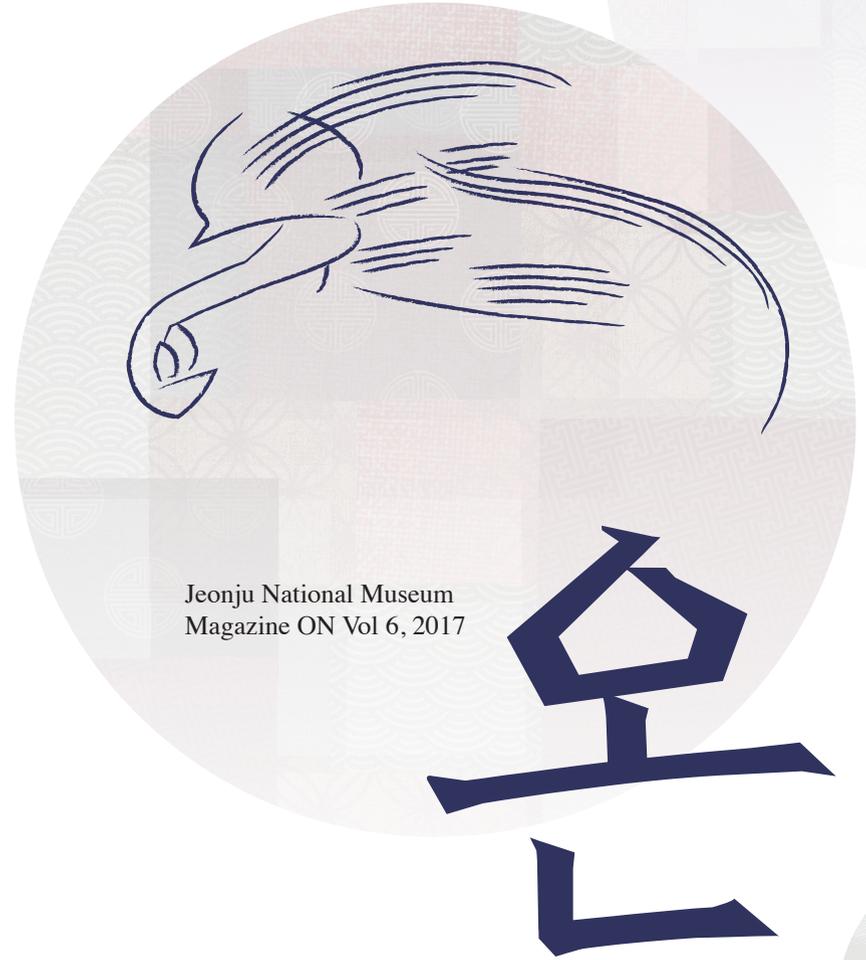


on

'온'은 '전체나 전부'의 뜻을 지닌 순우리말,
'모두'라는 뜻도 있어 박물관을 사랑하는 모두의 잡지라는 의미
술州의 술의(은진 진)에 해당하며, 한자로는 따뜻할 溫, 평온할 穩,
쌓을 蘊 포함 On은 (거리적·시간적으로) '진보하다'라는 의미



Jeonju National Museum
Magazine ON Vol 6, 2017



18

예정전시

한국의 전통 종이, 전주 한지



14

박물관 사람들

이순미 학예연구원



4

커버스토리

침몰선에 실렸던 고려 사람들의 꿈



50

전시리뷰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44

내가 찾은 박물관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이모저모

김지연 학예연구사 인터뷰



30

이야기마당

전시품 이야기

문학작품 속 음식이야기

영화 속 문화유산 이야기



60

박물관 소식

전북 박물관 전시 및 행사



52

문화나눔

교육 프로그램 소개

야간개장 프로그램 소개

Contents

Jeonju National Museum Magazine
ON Vol 6, 2017

발행일 2017. 8 발행처 국립전주박물관 주소 550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옥곡계로 249
전화 063.223.5651 팩스 063.224.0799 누리집 jeonju.museum.go.kr
디자인 · 제작 디자인노리 063.905.9983

글 | 장 제근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침몰선에 실렸던 고려 사람들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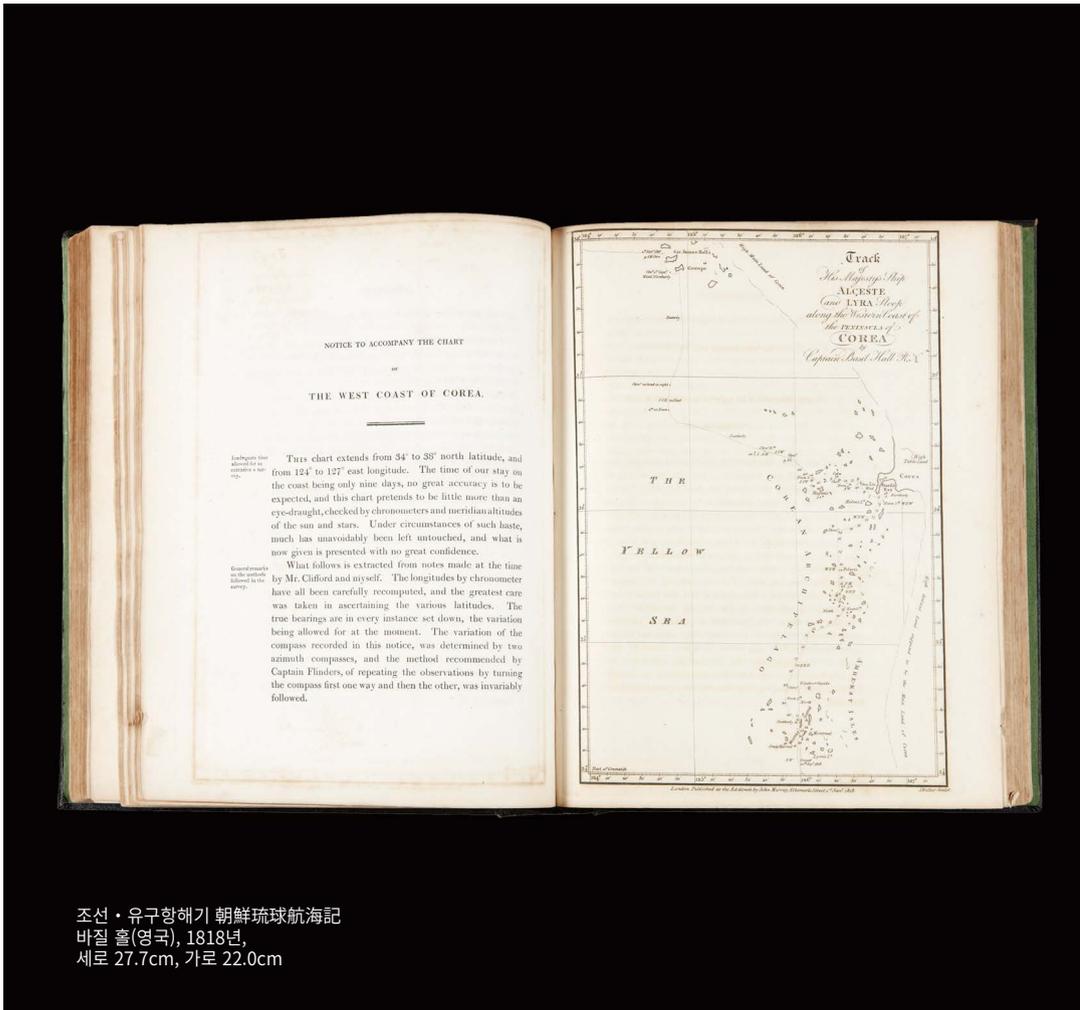
국립전주박물관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전라북도 지역 수중문화재 조사 15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침몰선에 실렸던 고려 사람들의 꿈」(2017.5.23.~9.24.)을 열었습니다.

선유도에서 바라본 고군산군도 전경(군산시 제공)



청자 음각 영무새무늬 접시 靑磁陰刻鸚鵡文碟
고려, 높이 4.8, 입지름 15.6, 군산 비안도

제22회 '바다의 날'(5.31.)과 군산에서 열리는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7.6.~8.)와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북 수중발굴조사 유물을 소개합니다. 전북의 수중문화재 조사는 새만금 방조제 건설을 계기로 고군산군도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조제를 건설하는 대규모 물막이 공사로 인해 주변 바닷속 물길이 변화했고, 덕분에 펄 속에 묻혀있던 유물이 발견되어 발굴로 이어졌습니다. 2002년 군산 비안도飛雁島 수중발굴 이후 2003~2004년에 군산 십이동파도十二東波島, 2006~2009년에 군산 야미도夜味島에서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고려시대 청자를 운반하던 배인 '십이동파도선'을 비롯한 도자기, 닻돌, 철제 솥, 시루, 밧줄 등 1만 5,0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선 · 유구항해기 朝鮮琉球航海記
 바질 홀(영국), 1818년,
 세로 27.7cm, 가로 22.0cm



침몰선에 실렸던 고려 사람들의 꿈 전시풍경



도자기 선적방법 청자묵음 재현

이번 특별전은 2002년 4월 소라잡이에 나선 어부의 신고로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한 군산 비안도 해저유물을 시작으로 심이동파도, 아미도 해저유물 등 전북 서해안 일대의 수중발굴 성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하였으며, 출토유물 중 3,000여점의 유물을 대중들에게 선보입니다. 또한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에서 발견된 유물도 함께 소개하면서 해양 문화교류의 요충지인 고군산군도와 바닷길을 재조명해보고 고려 사람들의 삶과 꿈을 전시를 통하여 이해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전시는 크게 5부로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1부는 전북 지역의 인문지리적 환경을 보여주는 대동여지도, 동여도 등 우리나라의 고지도와 서양인이 쓴 <조선·유구항해기>를 소개하면서, 수중문화재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수중고고학과 수중문화재 조사 방법을 소개합니다.

제2·3·4부에서는 비안도, 십이동파도, 야미도에서 건져 낸 다양한 고려시대 유물을 통해서 바닷길을 이용한 고려 사람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이 지역에서 인양한 유물은 대부분 고려시대의 것으로 특히, 전남 해남, 전북 부안 등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품질의 청자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은 고려시대 청자 운반선인 '십이동파도선' 선체 일부가 그 동안 10년 이상의 보존처리를 마친 후 닳돌, 시루, 밧줄 등 선상생활용품과 함께 전시된 점입니다. 그 외에 야미도 발굴 현장에 투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문화재 발굴 전용선인 '씨뮤즈호' (2006년 취항) 모형도 볼 수 있습니다.



침몰선에 실렸던 고려 사람들의 꿈 전시실 입구



청자 합靑磁盒
고려, 높이(중앙) 3.5, 지름(중앙) 7.9, 군산 비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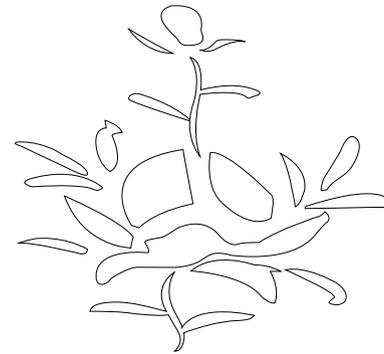
침몰선에 실렸던 고려 사람들의 꿈 전시풍경



청자 꽃모양 접시靑磁花形碟
고려, 높이(오른쪽 위) 4.2,
입지름(오른쪽 위) 12.6, 군산 심이당파도

끝으로 제5부에서는 무녀도, 신시도, 까막섬 등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소개하고, 고대부터 이어져 온 동아시아 해양 교류의 역사와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전북 지역 수증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국내 수증문화재 발굴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해양문화유산이 올바르게 인식되는 시간이 되기를 크게 기대해 봅니다. ㉑





글 | 이순미

국립전주박물관 유물관리팀 이순미 학예연구원

Q. 전공 및 관심연구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 위인전 및 역사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았습니다. 역사프로그램에서 학예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은사님의 “너는 역사를 참 잘하는구나” 이 말씀이 지금의 일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현재 관심 분야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입니다. 백제의 무덤과 그 안에서 발견된 꺼묻거리에서 백제인의 세계관과 문화를 이해하고, 백제가 발전해감에 따라 한강지역에서 마한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Q.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소장품관리입니다.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립박물관의 소장품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장품의 등록 및 이동사항 등을 입력하고 소장품의 현재 위치 및 수량, 통계 등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품복제의 민원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복제는 소장품의 열람 및 사진자료 촬영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장품을 직접 보고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소장품을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과 박물관에서 전시 및 도록을 위해 고화질로 촬영한 소장품 사진자료를 제공해주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유물관리팀



실측 및 넘버링 작업



유물 실측

소장품 사진촬영

Q. 근무하는 동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소장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정고의 모든 소장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재 위치 및 상태 등을 실사했던 업무인데요. 소장된 모든 유물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내가 정말 좋은 곳에서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Q. 유물관리 학예연구직을 전공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박물관의 기본은 유물입니다. 이 유물을 이용하여 전시, 대여, 열람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유물관리직은 수장고에서 유물이 반출되어 인수·인계가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과정을 참여합니다. 이동 중에 생길 유물의 이상, 극히 드문 예겠지만 유물이 바뀐다든지, 수량이 맞지 않는다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물을 살펴볼 때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보고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물관리를 하실 때는 유물의 안전과 꼼꼼하게 체크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



글 | 김현정 · 이영범

중국소주박물관교류전 한국의 전통 종이, 전주 한지

국립전주박물관은 자매교류관인 중국소주박물관에서 오는 9월 20일
“한국의 전통 종이, 전주 한지(2017.9.20.-11.26.)”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전시는 지난 2015년 10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렸던 특별전
“당송전환기의 오월(2015.10.27.-12.20.)”에 이은 상호 교류 전시이다.

1 포도병풍 葡萄圖屏
최석환 崔奭煥(1808~?)
조선朝鮮 1879년
지본수묵 紙本水墨
123.0×348.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본관7961



2

2 관복도 觀瀑圖
정선鄭敾(1676~1759)
조선朝鮮 18세기
지본수묵 紙本水墨
20.6×75.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덕수4269

종이는 인류의 손꼽히는 발명품이자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능하는 척도이다. 글이나 그림 등을 기록하여 인간이 축적한 지식을 전달해 왔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지韓紙는 한국의 문화 수준을 잘 보여 준다. 한지는 닻나무를 원료로 하여 전통방식 그대로 손으로 떠서 만드는 한국의 전통 종이를 이르는 말이다.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하였던 전주는 질 좋은 종이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전주에서는 여전히 한지 생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전주 한지는 전주의 한지문화, 나아가 한국의 한지와 한지문화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종이는 천년을 살고 비단은 오백년을 산다”는 생명력이 강한 한지의 특성과 우수성을 살펴보고, 전주의 특산인 한지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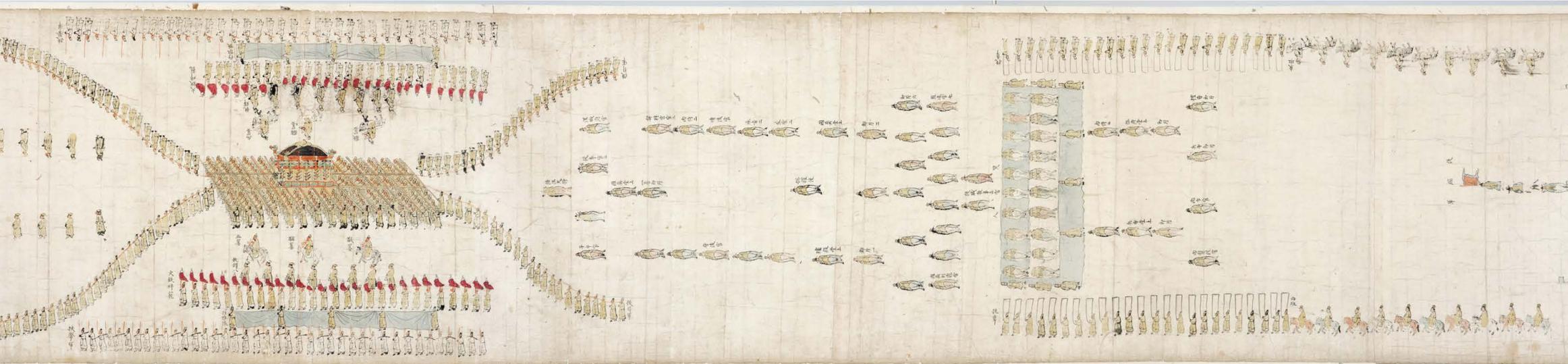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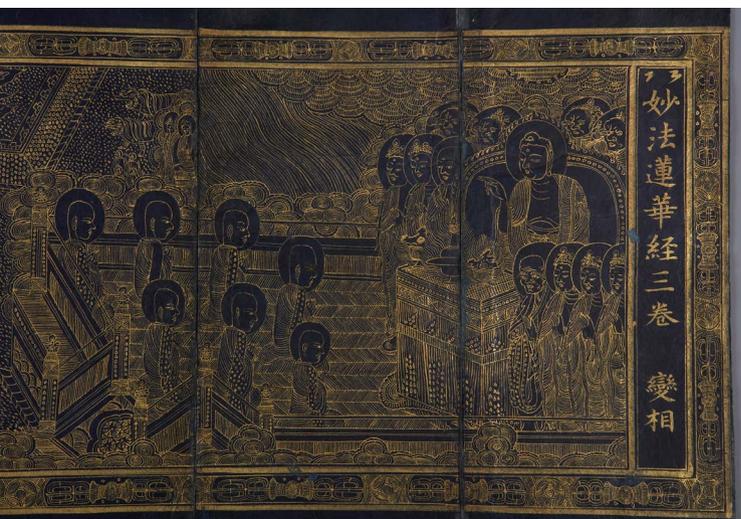
한지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지에 쓰여진 기록유산, 글씨와 그림, 그리고 한지로 제작된 공예품을 전시한다. <정선 필 관복도> 등 옛 미술 작품을 비롯하여 현대 장인과 작가들이 만든 현대 공예작품까지 망라하여 모두 49건 106점이 출품된다. 전시의 구성은 크게 4부로 구성된다. 먼저 프롤로그 “한지를 말하다”에서는 한지의 정의, 최초 사용 시기, 특성 등 개요를 소개한다.

1부는 전주 한지와 그 문화에 대한 것이다. 전주는 조선시대 최고의 한지 생산지였다. 이러한 한지의 생산을 바탕으로 인쇄문화와 출판문화가 발전하였고, 공예품도 발달하였다. 전주에 소재한 전라도 감영에서 발행한 완영본의 서적과 목판, 전주 일대의 민간에서 출판한 <심청전> 등 방각본 소설, 그리고 전라감영 내에 설치되었던 선자청에서 제작된 부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선면화를 전시한다.

3 심청전 沈淸傳
조선朝鮮 20세기 초
간행 추정
목판본木版本
26.2×18.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수15191



4



5



2부는 한지문화를 기록문화유산, 회화, 조선 왕의 글씨 등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한지의 가장 기본적 쓰임인 기록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와 사찰에서 기록 제작한 작품을 전시한다. <감지금니은니묘법연화경>, <을축정순왕후인산도> 등 이다. 회화로는 한지 위에 먹의 농담과 붓의 움직임을 살려낸 <최석환 필 포도병풍> 등을 펼쳐 보인다. 또한 왕이 쓴 어필을 선보인다. 이처럼 어람용 국가기록문서와 외교문서, 사경 등에는 가장 질 좋은 한지가 사용되었다.

4

을축정순왕후인산도 乙丑貞純王后因山圖
조선朝鮮 1805년 지본채색 紙本彩色
卷子本 51.0 × 1698.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본관11259

5

묘법연화경 권3 妙法蓮華經 卷三
조선朝鮮 15세기
紺紙銀泥(경문)金泥(번상)
절첩본 33.9 × 12.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본관5053



6



7

6 실함 色紙函
조선朝鮮 19세기 말~20세기 초
지紙
17.5×31.0×13.0cm
전주한지박물관 소장

7 실함 色紙函
김혜미자 金惠美子
대한민국
지紙
16.0×25.0.×12.5cm
(세로 16.0, 가로 25.0, 높이 12.5cm)

8 대윤선 大輪扇
김동식 金東植
대한민국
지紙
81.4cm



8

3부는 전통을 계승한 한지 공예에 대한 것이다. 한지공예는 조선시대에 가장 성행하였고, 특히 조선시대 중엽에서 구한말까지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이 남아 있다. 부채와 안경집 등 사랑방 선비들의 기호품과 색지함 등 규방 여인들의 애호품, 그리고 지승항아리 등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던 물건들이다. 이러한 조선시대 작품과 이를 계승한 현대 장인들의 작품이 함께 선보인다.



중국 소주박물관 전경 蘇州博物館 全景



9 그날들 / 소빈 蘇濱
대한민국 / 종이 紙 / 세로 35.0cm



10 한지바구니와 꽃 / 이효선 李孝善
대한민국 / 종이 紙
세로 23.0cm, 가로 40.0cm



11 심 休 / 차종순 車宗順
대한민국 / 종이 紙
세로 30.0cm, 가로 30.0cm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현대 한지의 여러 쓰임새를 살펴본다. 한지는 현대 작가의 창작활동을 도우며 산업용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지는 소재적 특성상 내구성이 강하고 가공이 쉬우며 은은하고 자연스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에 가깝고 인간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한지'에서 내재한 '자연 친화적 교감'이라는 철학적 측면 또한 널리 사랑받는 까닭이다. 이를 보여주는 현대 작가들의 한지 작품과 양말, 벽지 등 실생활 상품을 전시한다. 그 밖에 "한지의 제조 과정", 현미경을 통해 본 "한지의 재료적 특징" 등과 같은 코너를 마련하여 과학적 이해를 도움 예정이다.



12 위엄 威嚴 / 이부덕 李富德
대한민국 / 종이 紙
세로 44.5cm, 가로 30.5cmw



13
 나.너.우리 Mine.Yours,Ours
 유봉희 兪奉姬
 대한민국
 종이 紙
 세로 66.0cm, 가로 66.0cm

한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이번 전시는 종이를 발명한 중국에서 한지와 한지문화의 고유한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 이를 통해 소주와 전주가 깊은 우호와 협력을 다지고, 아울러 중국 국민과 한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14 한지 의상 韓紙衣裳
 이유라 李有羅
 대한민국
 종이 紙
 세로 128.0cm, 가로 53.0cm



14

15 지승담향아리
 문연희 文蓮姬
 대한민국
 종이 紙
 세로 44.0cm, 가로 42.0cm



15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경

글 | 권소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국보 제 123호 사리장엄구

1960년대 전주에서 논산으로 가는 국도 1호선에 자리한 낮은 언덕,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그 언덕에는 북쪽으로 기운 석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는 어엿한 국보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의 옛 모습이다. 그렇게 기울어 있던 석탑은 1965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의 석탑 중수를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립전주박물관을 대표하는 전시품이자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인 금강경판(金剛經판)과 함, 금제 사리함과 유리제 사리병 등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출토 사리갖춤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삼국시대(백제), 7세기 전반, 국보 제 1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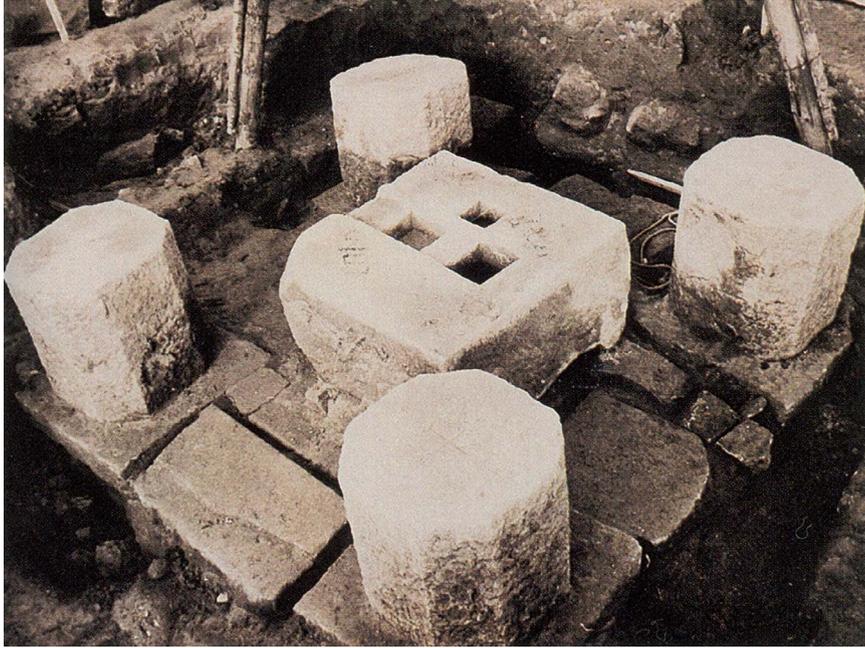
사리병 · 사리내함
 舍利瓶 · 舍利內函
 삼국시대(백제), 7세기 전반, 사리함 높이 10.5
 국보 제 123호



왕궁리 오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전시 모습

사리장엄구가 발견된 곳은 1층 지붕돌[옥개석, 屋蓋石] 윗면 2개의 구멍과 탑을 받치고 있던 기단부 심초석(心礎石)의 '品'자로 뚫린 3개의 구멍에서이다. 1층 지붕돌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지금까지 조사된 사리봉안 방식으로는 유일하게 법신사리(法身舍利)와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동서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봉안한 것으로 공예적으로도 매우 우수하여 국보 제12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동편 구멍에는 금동제사리외함 안에 금제사리내함을 넣었으며 그 속에 부처의 유골인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녹색 유리제사리병을 안치하였다. 금동제사리외함은 겉면에 붉은 칠을 하고 내면에 도금하였으나 녹이 많이 슬어 금색은 얼마 남지 않았고 붉은 칠을 하였던 흔적만 보인다. 금제사리내함은 연꽃 모양 꼭지가 부착된 끝이 뾰족한 모양의 뚜껑이 있는 네모난 합이다. 몸체 전면에는 가장 바깥 테두리에 원을 연주문(聯珠文) 형식으로 배치하였고 그 안에 이중의 방형 테두리를 구획한 후 꽃무늬(花文)를 장식하였다. 금제사리내함 속에는 꽃무늬가 장식된 방형 받침 위에 이중의 연꽃과 그 중심에 원형 대좌를 놓아 연화좌(蓮華坐)를 만든 다음 그 위에 높이 7.7cm의 녹색 유리제사리병을 안치하였다. 주둥이가 좁고 목이 길며 배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입구에는 연꽃봉오리 모양의 금제 뚜껑이 끼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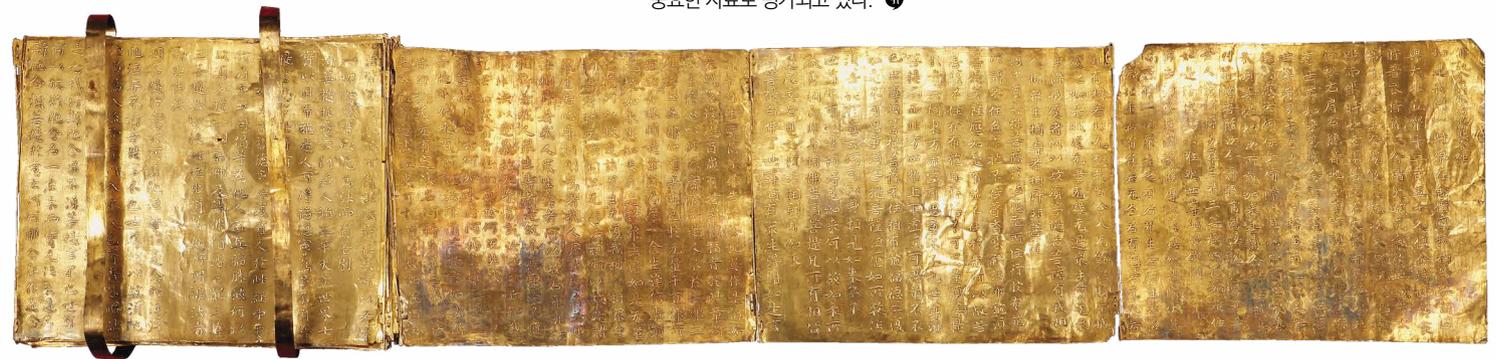


기단 내부에 위치한 심초석

서편 구멍에는 부처의 말씀인 법신사리 봉안을 뜻하는 금강경판 19매가 금동제경판내함에 들어 있으며 이것은 다시 금동제경판외함에 들어 있다. 금동제경판외함의 제작 수법은 동편 금동제사리 외함과 동일하다. 금동제경판내함은 직사각형이며 뚜껑 중앙에는 손잡이 고리가 달려 있고 그 안에 불설금강반야바라밀경(佛說金剛般若波羅密經) 금강경판이 묶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금강경판은 19장의 경판에 구멍을 내서 경첩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각각에 금사가 부착되어 있다. 각 판에는 17행, 17자가 양각 되었으며 국내에서 발견된 것으로는 유례가 없는 작품이다.

일반적인 석탑의 사리장치와 달리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는 탑신부에 봉안된 사리장치와는 별도로 기단 내부에 위치한 심초석에도 '品'자로 뚫은 3개의

금강경판
金剛經板
삼국시대(백제), 7세기 전반, 세로 14.8, 가로 17.8,
국보 제 123호



구멍이 확인되었다. 이 구멍 가운데 동편에서는 소형 금동여래입상과 불교의식 때 흔들어 소리를 내던 청동방울 1개가 발견되었다. 북편의 구멍에서는 향로로 보이는 흑색의 편과 철편 등이 수습되었으나 서편의 구멍은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을 통해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미술품이 선보일 기회가 있었다. 백제시대의 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2007년 부여 왕흥사지 목탑 사리장엄구와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석탑 사리장엄구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리장엄구의 발견 전까지는 구체적인 실물자료가 부족하고, 매남 당시의 상황이 온전히 보존된 예가 드물어, 백제의 사리신앙과 장엄방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왕궁리 석탑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최근 백제 후기인 7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다른 백제시대 사리장엄구와의 관련 속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궁리 오층석탑내 발견 유물은 기존의 사리장엄구에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동반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진신사리와 법신사리를 구분하여 별도의 구역에 봉안하는 특이한 방식을 보여 고대 사리 신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부처 金銅佛立像
후백제, 10세기 초, 전체높이 17.4,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국보 제 123호

글 | 서승희

고향의 맛을 그려내다. 백석 - 시 '국수'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는 유년은 뽕따먹기를 하고 고무줄놀이를 하던 작은 골목길이다. 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유년은 동산에서 뛰어놀고 곤충을 채집하던 어느 시골 한적한 마을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우리에게 유년의 기억은 상징적인 공간으로 추억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공간을 '고향'이라고 부른다.

고층 빌딩이 유난히 많은 도시일지라도 그 앞의 작은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 또한 누군가에게는 고향의 이미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고향의 이미지는 유년을 재현하는 가장 큰 의미가 되어있다.

이렇듯 우리에게 언제나 친근한 풍경으로 다가오는 '고향'의 이미지는 애뜻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이상향으로 남아있다. 혹여 같은 장소가 현재에 존재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고향의 이미지와는 상이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고향'은 시간과 경험이 축적된 과거의 시공간 속에서만 머무른다.

그렇게 체화된 감각들이 남아서 추억되는 '고향'의 이미지는 성인이 된 누군가에게는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현재를 만들어가고 자신을 정의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과거의 경험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남아있고, 그것은 현재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고향의 이미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추억의 공간이자 이상향 또는 유토피아적인 성향으로 재구성되고 재생산되며 재소비된다.

작가들은 흔히 과거의 경험이나 원체험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녹아내곤 한다. 이러한 자전적 경향은 글의 생동감을 돕고 독자의 공감을 얻는데 유용하다. 특히 '고향'이라는 소재는 누구나 가지는 원초적인 공간이자 공통 분모이다. 각각의 개인이 나고 자란 곳의 장소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고향이 존재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고향은 누구에게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이다. 대다수의 작가들은 이러한 '고향'을 소재로 많은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지금부터 살펴볼 이 작가는 고향을 소재로 한 유명한 작품들을 남겼다.

작가 백석은 고향을 소재로 자전적 성향의 글을 쓴 작가이다. 백석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았던 자신의 생애와 경험들을 무수한 작품 속에 담아내었다. 그의 글은 주로 평북방언으로 쓰여졌으며, 어릴 때 사머니즘과 무속신앙을 믿었던 집안의 영향을 받아서 향토적이고 전통적이면서도 토속적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 서양문물이 들어옴과 동시에 모더니즘적 사고가 유행하였던 당시와는 달리 백석의 시는 고리타분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작가 임화가 이런 백석의 시를 보고 '시골뜨기의 문학'이라고 통박하기도 하였다. 근대의 교육을 받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던 모던보이 백석에게 어울리지 않던 '시골뜨기'의 성향은 바로 어릴 적 백석이 자라났던 고향에서의 체험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백석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군이다. 백석에게 있어서 고향의 이미지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상징이자 유토피아였다. 백석이 '시골뜨기의 문학'을 하게 된 원인은 여기에 있는데, 백석에게 있어서 고향은 처참한 현실과는 대비되는 낭만의 공간이었다. 백석은 항상 경제적으로 궁핍함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 당시 백석은 신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 만주에서 유랑하면서 현실적인 가난으로 인해 힘든 생활고를 겪어야만 하였다. 그런 백석에게 있어서 고향은 현실과는 다른 풍요롭고 자애로우며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백석은 이러한 고향의식을 '음식'이라는 소재에서 주로 찾았다. 음식은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일깨우고 행복의 근원이 되는 물질이자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다. 백석에게 있어서 행복이자 이상향은 '소박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끼니를 거르지 않았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백석은 고향의 음식인 평안도 지방의 서민 음식을 자주 작품 속에 등장시킨다. 과거에 주로 먹었고 행복했던 기억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음식이야말로 백석에게 있어서는 고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행복이 집약되어있는 유토피아였던 것이다.

백석의 시에서 음식이 등장하는 작품은 150 여종이 있다. 그 중 백석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먹는 음식에 더욱 주목한다. 전통 사회에서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들이 함께 나누는 시골 마을의 풍경과 향수를 공동체 음식에서 찾았던 백석은 주로 잔칫날 먹었던 음식인 '떡'과 '국수'를 소재로 작품을 내놓는다. 특히, '국수'는 시의 제목으로 등장시킬 정도로 백석에게는 특별한 음식이었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쟁하니 닉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땀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평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옥한 더복한 샷방 찢찢 끓는
아르굴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으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답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 백석 「국수」 본문 중



우리에게 국수는 잔칫날 나눠 먹는 음식으로써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여 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그만큼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사랑받고 있는 국수는 백석에게 있어서 마을 공동체를 내포하는 동시에 민족성 보여주는 음식이었다. 특히 백석의 시 「국수」에서 등장하는 '국수'는 일반 국수라기 보단 메밀을 이용하여 만든 냉국수인데, 이 메밀국수가 백석에게는 고향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대표된다. 백석의 고향인 평안북도는 메밀의 생산이 원활한 지역으로, 지방 음식으로 메밀국수가 명성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백석에게 메밀국수란 '고향의 맛'이었으며,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음식이었다. 백석이 궁핍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 국수를 떠올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백석에게 국수는 고향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도구였던 것이다.

백석은 시 「국수」에서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고향의 이미지를 그린다. 「국수」에서는 메밀이 익어가는 과정을 시작으로, 메밀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국수를 해 먹는 장면부터 국수를 먹는 과정까지 생동감 있고 정확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낙네들이 국수를 뽑아내고 아이들은 뛰여 놀며, 어린 화자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가져온 국수 사발을 기다리는 등 온 마을 사람들이 국수를 반가운 손님처럼 맞이한다. 이러한 정겨운 풍경은 백석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고향의

풍속이자 향수였다. 그런 그에게 '국수'는 결국 음식의 기능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상징이자 과거로의 회귀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유토피아적 대상이었다. 백석은 그렇게 농촌 공동체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으로 작품을 써 내려갔으며, 소박하지만 정겨웠던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며 국수를 통해서 그 날들을 재현하였다. '국수'는 이렇게 백석에게 있어서 '고향'이라는 근원적인 그리움과 이상향의 모습을 대변하는 음식이었다.

사람들은 자주 '어머니의 손맛이 그림다'라고 말하곤 한다. 우리는 이처럼 과거의 향수를 그리는 마음을 미각적 표현을 빌려서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내곤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운 유년의 추억과 고향이란 아마도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과도 같을 수 있다. 백석이 고향을 '국수'라는 음식으로 기억하듯 우리에게도 그러한 음식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추억하고 있는 맛이란 그 음식이 가진 본연의 맛도 있었지만, 그 음식을 먹었던 추억 속 어느 날들의 기억과 함께 향수라는 특유의 양념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맛일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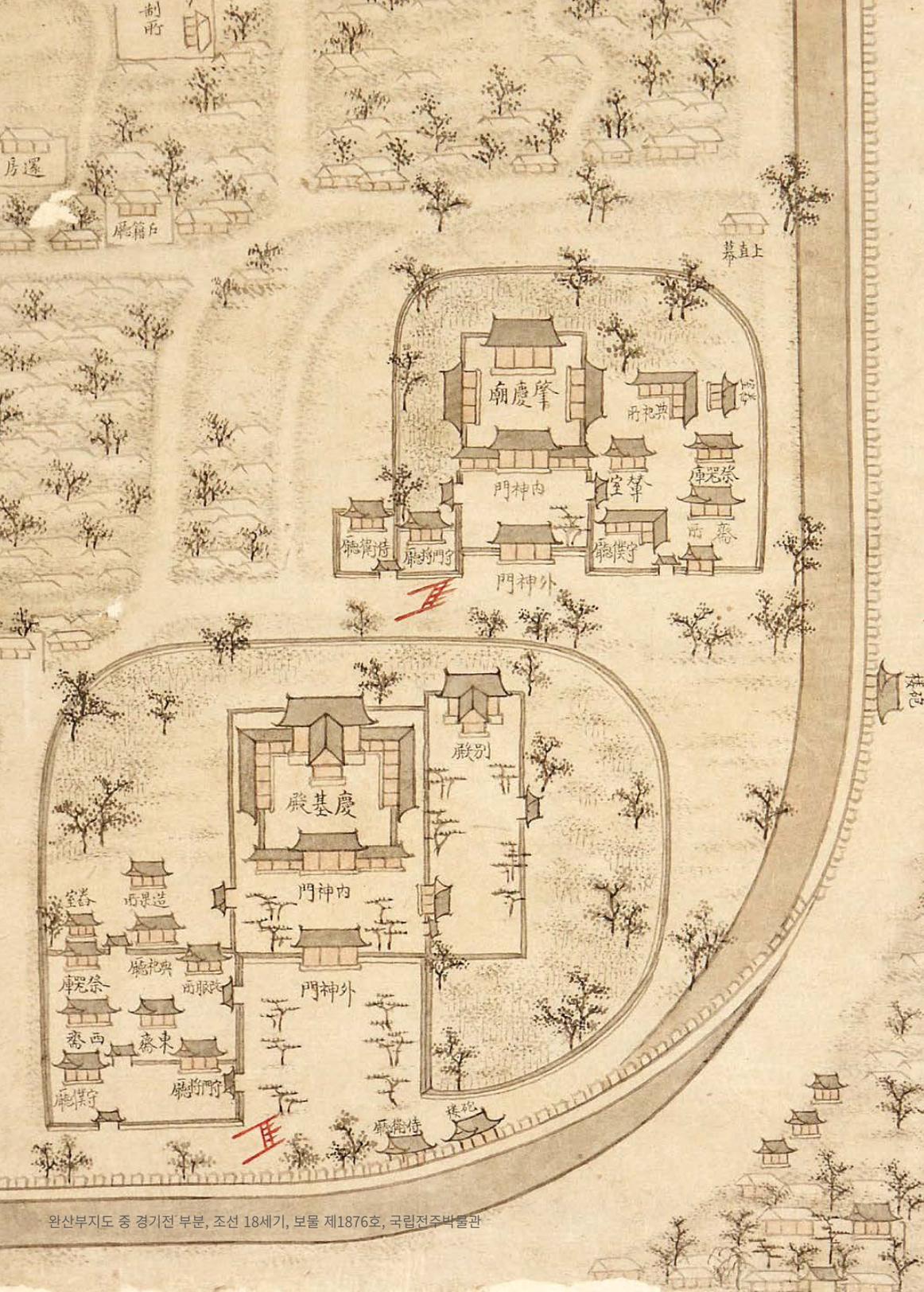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경기전慶基殿

2012년에 개봉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중 “可諱之事 勿出朝報(숨겨야 할 일들은 조보(朝報)에 내지 말라 이르다)”¹라는 한 줄의 글귀에서 시작된 광해군 재위 시절 사라진 15일 간의 기록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는 배우 이병헌이 데뷔 후 처음으로 사극 연기에 도전해 1인 2역의 연기를 선보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제 49회 대중상 영화제에서 상을 싹쓸이 하는 위업을 보여주며 감독상, 최우수작품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또한 유럽에서 한국 영화 관련으로 가장 권위 있는 런던한국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어 전석 매진되는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1 『光海君日記』 光海 8年 2月 28日 己巳



경기전 대나무길



완산부지도 중 경기전 부분, 조선 18세기, 보물 제1876호, 국립전주박물관

저잣거리의 한낱 만담꾼에서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어버린 천민 하선은 허균의 지시 하에 말투부터 걸음걸이, 국정을 다스리는 법까지, 함부로 입을 놀려서도 들켜서도 안 되는 위험한 왕노릇을 시작한다. 하지만 예민하고 난폭했던 광해와는 달리 따뜻함과 인간미가 느껴지는 달라진 왕의 모습에 궁궐 안이 조금씩 술렁이고, 허균이 지시하는 대로 왕의 대역 역할에 충실하던 하선이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왕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영화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다. 자신의 안위와 왕권만을 염려하던 왕 광해와 달리 정치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사람과 백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아는 하선의 모습은 권력의 가장 하위에 있는 천민의 모습을 빌어 조선이 필요로 했던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그려냈다.

경기전은 '명성황후'나 '용의 눈물', '궁', '성균관 스캔들', '구름이 그린 달빛' 등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몇 장면이 이곳 경기전에서 촬영되었다. 광해군으로 분장한 광대 하선(이병헌)이 왕비 유씨(한효주)에게 다가가는 장면이다. 이에 김을 붙여 썩은 이 흉내를 내며 웃던 하선, '웃기지 않소?' 하자 유씨가 차분한 표정으로 '웃기옵니다' 했던 장면으로, 그때 하선이 숨어있던 왕비 처소 담벼락이 바로 전주 경기전이다. 또한 대나무 사잇길로 하선과 유씨가 손잡고 뛰어가던 길도 경기전에 있는 대나무 길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임금의 초상화, 국보 제317호)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1410년(태종10)에 세워진 경기전慶基殿의 본래 이름은 어용전御容殿이다. 그러나 1412년(태종12)에 태조전전이라 고쳐부르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이 경기전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1442년(세종24)의 일이다.

경기전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전주성이 일본군에 점령되면서 불에 타서 무너져, 1614년(광해군6)에 보수되었다. 1676년(숙종2)에는 진전 동편 전주 사고 자리에 별전이 세워졌다.

또한 1919년 일제에 의해 경기전 서편 부속 건물이 철거되고 일본인 소학교가 세워졌으며, 1937년에는 별전이 철거되었다. 1997년 경기전 서편 부속건물 자리에 있던 중앙초등학교가 이전되고, 2004년에 『경기전의慶基殿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사청 등 부속건물이 복원되었다. ❶



글 | 김지연(익산시청)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이모저모

일상 속 심포 같은 공간

2015년에 개관한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익산에 건립된 첫 공립 미술관이다. 고층 아파트 단지와 공원 사이에 있는 미술관은 지역의 문화적 균형을 맞추고, 내일의 문화 생산자와 작가를 키우는 터전이자 대중과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미술관은 익산의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우수 전시 유치 및 지역 예술가 발굴 프로젝트, 유아에서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아카데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감상교육 등을 진행하며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전북 익산시 동서로 490번지에 위치한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총면적 760㎡ 규모로 3개 층에 2개의 전시실과 강좌실, 세미나실을 갖추고, 200여 점의 소장품과 소장자료 등이 있다. 각각의 공간은 전문가·시민들의 문화적 활동으로 가치를 더하는데, 특히 전시실은 미술을 넘어 동시대 예술의 다양한 상징과 요소를 수용하고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지역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1



2



3



4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어른들만 향유할 수 있는 고급문화인가?
(혹은 아이와 손잡고 미술관 산책)**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수집과 연구의 기능을 넘어 교육과 체험이 강화된 미술관으로 변신 중이다. 딱딱하고 엄숙한 미술관이 아닌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더욱 친근한 미술관이 되고자 최근 전시 공간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전시('모니카와 떠나는 세계명화 여행전')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명화에 넣어 어려운 명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눈높이 전시'로 우리에게 친숙한 명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점이 특징이다. 전시실은 루브르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31개의 미술관을 대륙별·나라별로 나누어 미술관 여행을 유도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행복한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흔히 미술 작품은 직접 만들어야 창의성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감상하는 것 역시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단순히 작가·작품의 이름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을 감상하며 자신이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유추하는 과정은 새로운 미술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감상의 방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전문 해설(도슨트) 프로그램은 작가는 물론 미술기법과 사조, 작품이 안고 있는 숨은 의미와 그 배경이 되는 역사·사회

적 이슈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전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영화감상법'은 지역 청소년들이 작가·큐레이터와 소통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익숙하게 느껴왔던 명화에 대한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2016년부터 진행한 문화예술아카데미는 강사진의 수준이나 커리큘럼 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카데미 수업은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회화, 공예, 사진의 예술영역을 아우른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강좌는 연령별 수업이 아니라 평면, 입체, 3D 프린트, 미디어아트 등 미술 분야별로 수업이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시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충족하고 미술 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어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다.

예술은 우리 삶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 삶 또한 예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지역의 예술인들과 교류하며 고유의 정체성(Identity)을 담거나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선보이는 한편,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는 순간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 앞으로도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지속 가능한 미술문화를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다. ❶

- 1 도슨트 프로그램
- 2 전시연계 프로그램
- 3 문화예술아카데미 창의발전소 강의 - 정크아트
- 4 문화예술아카데미 공예공방 강의 - 도자 공예

글 | 김혜영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김지연 학예연구사



Q.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한때 문화재를 공부하며, 그 일을 업으로 삼는 것을 고집하곤 했습니다. 제 주요 관심사는 하나의 작품에 투영된 도상을 읽고, 시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전북 지역 화단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찾아 보았는데 지역의 현대미술에 집중한 자료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전북의 미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바탕으로 미술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이 있는 익산은 천년 고도의 도시입니다. 저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三國史記』의 기록이 백제 문화와 미의식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백제시대의 유물이 현대의 최첨단 기술로 복원되고, 유물의 문양 일부분이 현대 공예품의 일부분을 장식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작품이 생산·재생산되는데 현대의 미술문화를 어떻게 읽고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됐고, 이 논의를 확장시키고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작가 재조명 전시장 전경 - 미술관 호수

Q.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장품(작품)과 본인이 소개해주고 싶은 소장품(작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의 소장품은 기증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사)한국공예문화협회에서 매년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품을 기증하기 때문에 소장품의 80% 이상이 공예작품입니다. 소장품 정리하고, 이를 전시하면서 공예가 가진 현대적인 감각들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도자 공예의 경우 흙과 불의 예술이라 일컬어지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불에 의해 기형이 바뀌거나 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도자가 몇 백 개를 깬고, 가마를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숨겨진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으며, 작품에 대해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Q. 그간 미술관 업무 가운데 가장 생각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늘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즈음 개막한 《전북지역의 작가를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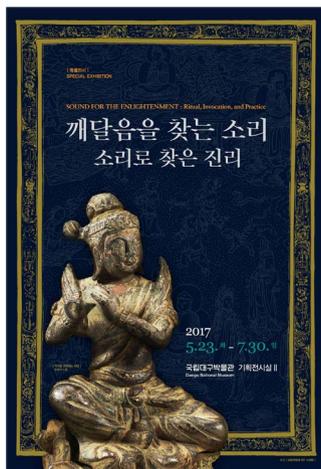
미술가의 언어》展은 지역 미술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 동시대 미술문화 안에서 전북 지역미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자 기획했던 전시입니다. 미술관에 호수를 설치하고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直指'를 조형적 어법으로 해석한 작품을 미술관의 공간 속에 재배치하고, 평론가들과 학술세미나를 진행하며 우리는 지역의 미술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술관에서 작품과 JAZZ 공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콘서트를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문화는 한 사람에 의해 선택될 수는 있지만 완성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의 미술관은 대중적이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공간을 움직이는 큐레이터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기존 전시 규칙을 깨며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있는 미술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그 외연을 넓히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

글 | 정대영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깨달음을 찾는 소리'



大音希聲 (대음희성) 大象無形 (대상무형)

“진정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 듯하며,
형체가 너무 크면 그 모습을 알 수 없는 법이다.”

- 노자(老子) -

6월의 시작을 알려온 것은 신록(新綠)의 푸르름보다는 이상고온의 열기였다. 이미 한나절 기온이 30도를 넘는다는 기사가 놀라울 일은 아니었으나, 여름의 대구는 쉬이 익숙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늘 여타의 마음을 상쇄시키는 법. 마음속은 '깨달음'에 대한 전시 생각으로 차 있었다.

'깨달음'이란 어떤 것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시장에서 시각화 할 수 있을지. 전주에서 대구로 가는 길에 나름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전시를 관람하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의 나래가 펼쳐졌다. '깨달음과 소리' 그 의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전시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았다.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기에.



국립대구박물관의 로비는 맛배 형식의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보는 이의 마음에 청량감을 더해 주었다. 초여름 햇살이 전시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왼편을 따라 입구가 위치해 있었다. 김도윤 연구사님의 안내로 각 전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지면을 빌어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각각 '울림', '말씀', '나타남', '수행'으로 명명된 주제 안에서 관람객은 소리와 깨달음의 길을 따라 안내된다. 먼저 '울림'에서는 실제로 소리를 내는 종과 같은 전시품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말씀'. 이제는 중심이 사물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가면서 염불과 독경의 소리가 설명되었다. 각 섹션은 단순한 공간적 구분만이 아니라 색채와 조명에 의해서도 나뉘어 있었다. 3부에서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중생을 위한 구원의 모습과 소리가 표현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부, '수행'은 '깨달음을 찾아가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부처가 되기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과 그들이 남긴 기록들은 고요한 명상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결국 전시의 시작은 소리의 퍼짐이었으며 마지막은 고요와 침묵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어둠속의 침묵이 아닌 자신을 밝히기 위한 고요함이 아닐지.

전시의 끝에는 동근 원의 모습과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문을 담은 작은 거울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 가야야 이 전시의 핵심이 보여주기(showing)가 아닌 생각하기(thinking)에 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듯하다. 원형 조명, 그리고 야침이면 늘상 보게되는 거울 앞을 쉬이 떠날 수 없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생각은 언제나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시를 나서며 노자의 말이 떠올랐다. 비록 추구하는 바와 방법은 달랐을 지라도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한 이들에게는 비슷한 면모가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좋은 전시를 준비해주신 국립대구박물관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①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Children's Museum

글 | 박한나

아동작가와 함께하는 이야기놀이

어린이박물관 로비에는 다양한 어린이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책들 속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아동작가와 함께하는 이야기놀이》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어린이박물관 배움공간에서 가족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매월 새로운 작가들을 만나며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가족, 환경, 생활 습관, 감정 등을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가족이 함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작가 고유의 창작 과정을 경험하며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52
2017 온[on] vol. 9

★ 따뜻하고 설레는 봄 4월

아이들은 새 학기 들뜨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의 낯선 환경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함도 있지요. 아이들의 <여러 감정들>을 아동심리학자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신혜은 작가와 이야기 나누었어요.

엄마의 행복은 어디있나 여~기요 나의 행복은 어디있나 여~기 요!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노래를 부르며 몸으로 신나게 놀았어요. 함께 온 엄마, 할머니, 언니, 오빠, 동생들과 평소에 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들려주었지요. 내 마음이 작아질 때, 내 마음이 커질 때를 스스로 곰곰이 돌아보며 온 가족을 위한 『내 마음의 그림책』 작가가 되었어요.



★ 행복이 가득한 5월

어린이날, 아버지날, 온 가족이 나들이로 즐거운 5월의 주제는 <나와 가족들>이었어요. 2015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이은우 작가와 함께했지요. 부엉이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담긴 책 『언제나 널 사랑한단다』를 읽어보았어요. 이야기와 그림을 따라가며 주인공 부엉이가 가족들과 닮은 점을 찾아보았어요.

저는 엄마와 어디가 닮았어요? 아빠와는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닮았어요?

속닥속닥 가족들의 저마다 다양한 대화들이 넘쳐났어요. 나와 가족들의 닮은 곳을 자세히 관찰하고 우리 가족의 즐거운 기억을 더듬어 본 후 각자 '가족 나들이' 작품을 완성했어요. 참가한 모든 친구들의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모았더니 엄청 큰 작품이 되었어요.



교육 프로그램 소개 | 문화나눔

53

마음이 커지는 방법 ★★
 1. 엄마가 번번 해주면
 마음이 커져요 ★★
 2.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 마음이 커져요 ★★
 3. 동시물로 편마음이 커져요 ★★



★ 반딧불이가 빛을 내기 시작하는 6월

환경의 날이 있는 6월,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지구야 아프지 마> 시간을 준비했어요. 직접 무주군 설천면 남대천 일대에는 천연기념물 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를 관찰하고 쓴 유애로 작가님의 『반딧반딧 반디각시』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인공 반딧불이 뿐만 아니라 무당벌레, 금테나비벌레, 무당개구리, 알락수염 노린재, 사향제비나비 친구들이 등장해요.

왜 지구가 점점 아파하지?

지구가 아파서 사라지게 되는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지구가 아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곤충, 식물, 동물, 자연환경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기발한 반입체 콜라주로 한여름밤 곤충 친구들도 표현해 보았어요. 곤충 친구들이 자연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갔으면 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품이지요.



아이들이 차곡차곡 남긴 소중한 창작물들은 일정기간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로비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박물관이라 하면 역사나 유물과 관련한 체험들만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체험거리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재밌고 유익한 책들을 선정해 소개하는 <어린이 북플레이션>으로 간접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간접 경험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어린이박물관이 아이들에게 박물관으로만 인식되기보다 뛰어들고 관찰하고 탐구하고 상상하고 표현하고 그것을 나누는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

※ <아동작가와 함께하는 이야기놀이> 참가 안내

- 교육기간: 2017. 4. 24.(월) ~ 2017. 11. 27.(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8회)
- 참가대상: 6~8세 어린이와 동반 보호자 30명 내외/회
- 신청방법: 누리집(jeonju.museum.go.kr) [교육▶어린이▶이야기놀이]을 통한 사전신청

★ 월별 주제

※ 세부 운영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작 가	주제 / 연관 도서	내 용
4.24(월)	신혜은	우리의 여러 감정들 『마음이 작아지지만』 『행복은 내옆에 있어요』	새로운 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사이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나누는 과정
5.29(월)	이윤우	나와 가족들 『언제나 널 사랑한다』	가족 간의 신체적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과정
6.26(월)	유애로	지구야 아프지마 『반딧반딧 반디 각시』 『갯벌이 좋아요』	갯벌, 곤충 등 주변의 환경 변화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
7.31(월)	윤지희	갖고 싶은게 너무 많아 『뽕가맨』	갖고 싶은 장난감을 모두 다 가질 수 있을까? 장난감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소비를 쉽게 이해하는 과정
8.28(월)	이경주	무섭지 않아! 『밤뽕』	사소한 모험을 통해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경험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과정
9.25(월)	야나리	동물 친구들 『엄마의 고래 수프』 『목욕탕 가는 길』	다양한 동물 친구들의 그림 (Silence Book)을 통해 그림으로 마음을 나누는 과정
10.30(월)	김동수	엉뚱한 상상 『감기 걸린 날』	작가와 함께 일상 속에서 어린이다운 상상의 날개를 펴볼 수 있는 과정
11.27(월)	김자연	맛있게 남남 『개똥 할멈과 고루고루 밥』 『수상한 김치 뽕』	전통음식(김치, 비빔밥) 이야기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과정

2017년

한가위 민속놀이 마당

2017.9.30.(토) ~ 10.9.(월)

오전 10시 ~ 오후 6시

국립전주박물관 야외마당, 문화사랑방

***10월4일 추석당일 휴관**



9월 문화공연

'레인보우 쇼' 서커스 저글링

공연명 | 서커스 저글링 '레인보우 쇼'

공연일시 | 2017.9.30 (토) 15:00

공연장소 | 국립전주박물관 옥외프락

대상 | 가족단위 관람객



2017년 9월 30일(토) 오후 3시

국립전주박물관 옥외프락

*이 공연은 야외공연이므로 예매는 하지 않습니다.

10월 문화공연

'디즈이즈잇' 년버벌 퍼포먼스

공연명 | 오즈를 찾아서 (어린이 참여 놀이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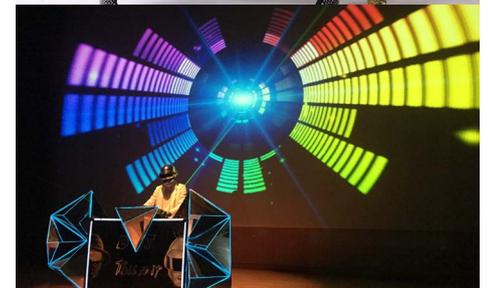
공연일시 | 2017.10.21 (토) 18:00

공연장소 | 강당

공연팀 | 디즈이즈잇

공연시간 | 60분

대상 | 가족단위 관람객



중국소주박물관교류전 “한국의 전통 종이, 전주 한지”

국립전주박물관은 자매교류관인 중국소주박물관에서 오는 9월 20일 “한국의 전통 종이, 전주 한지”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지난 2015년 10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렸던 특별전 “당송전환기의 오월(2015.10.27.-12.20.)”에 이은 상호 교류 전시입니다. 한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써 이번 전시를 통해 종이를 발명한 중국에서 한지와 한지문화의 고유한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전시 명칭

“한국의 전통 종이, 전주 한지”
(韓國의 傳統 紙, 全州 韓紙)

전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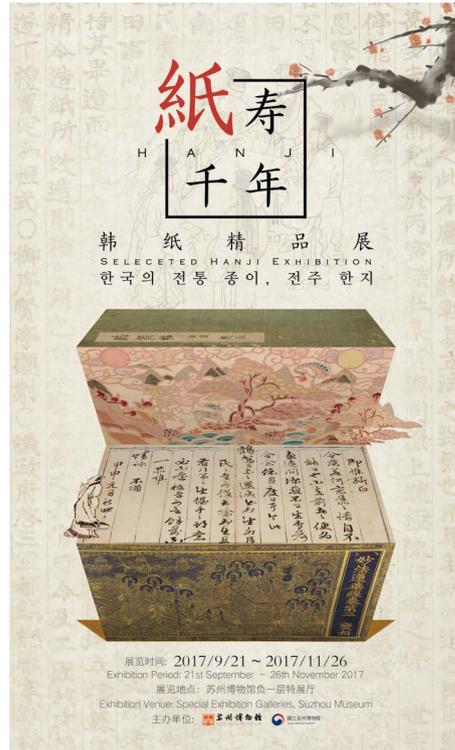
2017. 9. 20.(수) ~ 11. 26.(일)

전시 장소

중국 소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 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최석환 포도 병풍〉 등 49건 106점



특별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본”

이 전시는 우리 선인들이 글씨를 연습하며 즐겨 사용한 중국 명필의 글씨본[법서法書]을 소개하는 자리로,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10.21.~11.19.)와 연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비엔날레가 현대 서예를 조명하는 자리인데 비해, 이번 전시는 전통 서예의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시에서는 중국의 글씨본뿐만 아니라 이를 모범으로 삼았던 조선시대 선인들의 작품도 다수 출품됩니다. 전통문화와 서예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전시 명칭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본”

전시 기간

2017. 10. 21.(토) ~ 12. 3.(일)

전시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 유물

왕희지(王羲之)
〈난정수계첩(蘭亭修禊帖)〉 등 155여 점



와일드푸드축제

2017.9.22(금) - 9.24(일)
전북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제7회 와일드푸드축제

Wanju Wildfoods Festival

2017.9.22(금) - 9.24(일)
전북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주 제

“와일드에 풍덩 빠지다”

* wild > 거친 > 가공하지 않은 > 인위적 가공이 없으므로 ‘건강함’ 의미

* 와일드에 풍덩 빠지다 = 건강한 체험 · 놀이 · 먹거리의 즐거움에 풍덩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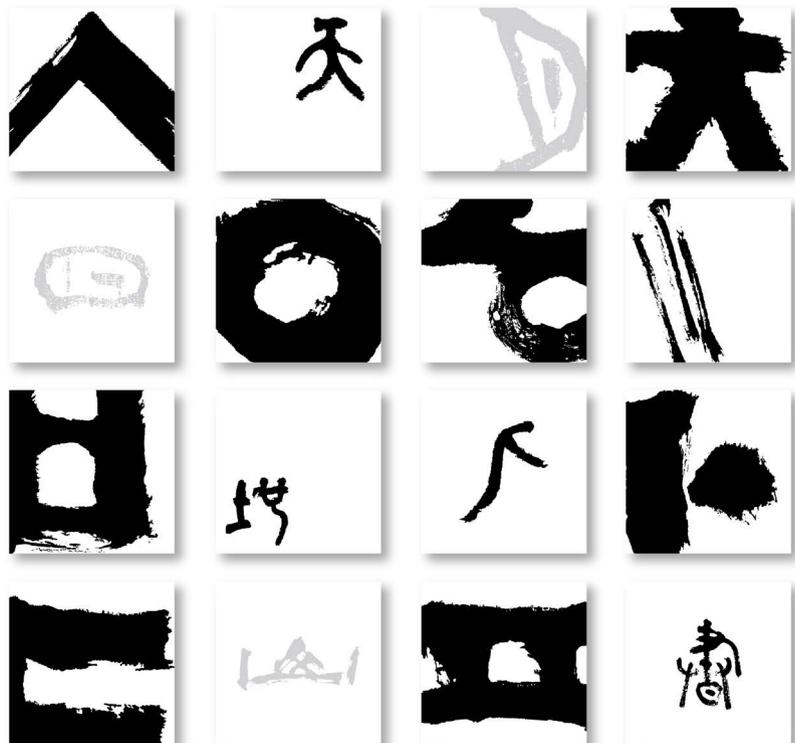
프로그램

2017 올해의 와일드푸드 선정, 지루한 요리대회는 가라, 관광객과 함께하는 LIVE 와일드 요리대회 개최, 축제의 역사를 담아낸다. 7th 와푸 갤러리 등

주최·주관 완주군·와일드푸드축제추진위원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와 응용

2017. 10. 21[±]-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2017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순수와 응용

서(書), 「역力·기氣·도道·예藝」를 말하다

기간 2017. 10. 21 ~ 11. 19(30일간)

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회관 등

행사내용 개막행사, 서론(書論) 서예전, 학술대회 등 5개 부문 25개 행사

주최 전라북도

주관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전통을 잇다 손에서 손으로



2017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작품전

2017. 5. 20. SAT -
2017. 10. 8. SUN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1층 기획전시실
매주 월요일 휴관



주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주관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특별전시 전통을 잇다-손에서 손으로

우리 무형의 유산인 국가무형문화재는 전통공예기술과 공연·예술, 생활습관, 의식·의례, 놀이·무예분야 총 136개의 다양한 종목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 중 전통공예기술 분야는 51개의 종목에 이른다. 그리고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 장학생이라는 전승자들이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전통을 잇다-손에서 손으로』전은 '이수자'라 불리는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의 제자들이 작품을 선보이는 장으로 전통 공예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총 40종목, 50점에 이르는 엄선된 작품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로 이 모든 것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간 2017. 5. 20 ~ 10. 8

장소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1층 기획전시실



2017 전북도립미술관 아시아 현대미술

〈아시아현대미술전 2017〉에는 아시아권 10개국에서 24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아시아 미술을 전복에 불러들이고, 전복미술을 아시아로 나가게 하는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현대미술전과 창작스튜디오를 통해 전복미술가를
아시아권에 파견하고, 아시아권 미술가를 전복에 불러들이면서 지평을 넓혀갈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흐르는 것은 멈추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전시 명칭 아시아 현대미술展 2017

전시 기간 2017. 9. 1.(금) ~ 12. 3.(일)

전시 장소 전북도립미술관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ASIA WOMEN ARTISTS

2017. 9. 1
- 12. 3

전북도립미술관

국제여성미술컨퍼런스
2017. 9. 2. soil 10:00 - 18:00
국립중앙미술관 서울관 409호 국제회의장

주최 전북도립미술관 TTV 전주방송



아시아현대미술전 2017
ASI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본

2017.10.21. - 12.03.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